

‘오징어2’ 출연진 이렇게 럭셔리한 이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연진 공개
임시완·강하늘·박성훈·위하준·양동근 합류
기존 이정재·이병헌·공유 더해 슈퍼 럭셔리

계 잘생긴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게 생경하다. “스타 배우들이 이정도로 합류했다면 시즌2는 시즌1과는 양상이 많이 다른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정재·이병헌·공유+임시완·강하늘·박성훈·위하준·양동근

지난 17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넷플릭스 팬 이벤트 투둠(TUDUM)에서 발표한 ‘오징어 게임’ 시즌2 합류 배우는 임시완·강하늘·박성훈·위하준·양동근 등 5명이다. 여기에 이미 출연이 확정돼 있는 이정재·이병헌·공유가 있다. 이정재·이병헌·공유만으로도 이미 호화 라인업인데, 다른 영화·드라마에서 단독 주연을 맡을 수 있는 배우 5명이 추가로 합류했다. 스타인 것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 뛰어난 연기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이전에 한국 영화·드라마에 전례 없는 캐스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기다리고 있는 국내 팬들은 대체로 이번에 공개된 ‘슈퍼 럭셔리 라인업’에 환호하고 있다. 다만 이 작품을 좀 더 깊게 보는 일부 팬 사이에선 해당 출연진이 ‘오징어 게임’ 기존 콘셉트와 맞지 않게 과도하게 화려한 캐스팅이어서 이질감이 든다는 반응도 나온다.

◇럭셔리 라인업과 ‘오징어 게임’은 안 맞는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 시즌1에는 스타라고 부를 만한 배우가 이정재 외엔 없었다. 이병헌과 공유가 나오긴 했지만, 스펀지 보노모와 위하준이 그나마 알려진 배우였지만 인지도가 높지 않았고, 오영수·정호연·허성태·이유미·김주령·아누팜 등 주요 배우들 모두 이 작품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른바 이런 ‘무명 배우 캐스팅’은 국내 팬들에게만은 ‘오징어 게임’과 딱 맞아떨어지는 결정으로 평가받았다. 예상치 못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평범한 사람 456명이 모여 생존 게임을 벌인다는 스토리와 부합하는 캐스팅이었기 때문이다.

시즌2 캐스팅은 시즌1과 정반대다. 이정재와 함께 이병헌과 공유가 극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외모와 연기력을 모두 갖춘 30대 대표 배우인 임시완·강하늘·박성훈·위하준 등장하게 되면서 “456억원을 건 평범한 이들의 생존 게임”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됐다.

◇제작비 높이고 세계관 넓히고

이런 변화를 제작비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는 시선도 있다. 시즌1 제작비는 약 2100만 달러, 시즌2 제작비는 이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1억 달러 정도가 될 거로 추측된다. 회당 제작비가 100억원 이상 될 거로 보기도 한다. 제작비가 많으면 더 인지도 높은 배우를 기용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초호화 배우진을 구축한 것은 제작비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스토리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황동혁 감독은 지난해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오징어 게임’이 보여줄 이야기에 대해 “프린트맨(이병헌)의 숨겨진 이야기와 황준호(위하준)의 이야기, 딱지남(공유)의 미스터리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황 감독은 이와 함께 다른 인터뷰에서 “주인공 성기훈(이정재)가 다시 서바이벌 게임으로 돌아간다”고도 했다.

황 감독의 말은 앞으로 나올 ‘오징어 게임’ 시리즈가 시즌1처럼 서바이벌 게임을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세계관을 넓혀 이 생존 게임과 관계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로 확장해 나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캐릭터를 연기해줄 스타 배우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임시완·강하늘·박성훈·위하준·양동근 등이 합류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팬들이 “출연진을 보니 시즌2와 시즌1은 완전히 다를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측인 것이다.

◇시즌2 언제 볼 수 있는가

한편 이번에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연진이 공개되면서 이 작품이 언제쯤 공개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단 황 감독과 넷플릭스가 얘기했던 시즌2 공개 시점은 2024년이다.

올해 중 촬영을 시작한 뒤 내년에 공개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다. 제작비가 늘어난만큼 제작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내년 후반기에는 볼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시즌2에 이어 시즌3 제작도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황 감독은 지난해 5월 미국 매체 베니티페어와 인터뷰에서 “대본 작업은 진행이 안 돼 있다”며 “2024년은 돼야 시즌2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진스, 다시 신드롬...다음달 ‘겟 업’

두 번째 미니앨범 발매...내달 7일 ‘슈퍼 사이’ 등 선공개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6개월 만에 컴백한다.

19일 소속사 어도어(ADOR)에 따르면, 뉴진스는 오는 7월21일 두 번째 미니앨범 ‘겟 업(Get Up)’을 발매한다.

총 6곡이 실리는데 ‘슈퍼 사이(Super Shy)’·‘ETA’·쿨 위드 유(Cool With You) 세 곡이 타이틀곡이다. 여기에 프롤로그 트랙 ‘뉴진스(New Jeans)’와 인터루드(interlude) 트랙 ‘겟 업(Get up)’, 에필로그 곡 ‘ASAP’이 더해진다.

뉴진스의 트리플 타이틀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데뷔 미니앨범 ‘뉴진스’에서 트리플 타이틀곡 ‘어텐션(Attention)’·하이프 보이(Hype Boy)·‘쿠키(Cookie)’를 내세워 인기 돌풍을 일으켰다. 이어 올해 초 첫싱글 ‘오엠지(OMG)’를 내고 선공개곡 ‘디토(Ditto)’와 타이틀곡 ‘OMG’로 1분기 내내 ‘뉴진스 신드롬’을 재현했다.

앨범 발매에 앞서 7월7일 프롤로그 트랙 ‘뉴진스’와 트리플 타이틀곡 중 하나인 ‘슈퍼 사이’를 미리 공개한다. 두 곡은 1번과 2번 트랙이다. 어도어는 “감각적이고 매력적인 곡”이라고 소개했다.

이번에도 민희진 어도어 총괄 프로듀서의 프로듀싱이 큰 기대를 모은다. 민 프로듀서는 ‘뉴진스’와 ‘OMG’로 K-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고된 앨범 프로모션의 규모가 상당하다. ‘겟 업’에 담긴 6곡 전부 뮤직비디오가 제작된다. 글로벌 브랜드들과 이색 협업을 비롯해 예상을 뛰어넘는 캠페인 게스트 출연 등이 예정됐다.

일례로 뉴진스는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카툰 네트워크 ‘파워퍼프 걸’과 컬래버레이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파워퍼프 걸’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 ‘겟 업’ 예약 판매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했다. 이 음반은 ‘버니 비치 백 버전(Bunny Beach Bag ver.)’, ‘더 파워퍼프 걸스 X 뉴진스 박스 버전(The POWERPUFF GIRLS X NJ BOX ver.)’, ‘위버스(Weverse) 앨범 버전’ 등 총 3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배우 권나라, 수애·김옥빈과 한솥밥



배우 권나라가 고스트 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19일 소속사 고스트 스튜디오에 따르면 권나라는 2017년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로 배우로서 첫 발을 내디디며 안정적인 연기력과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시켰다. 이어 ‘나의 아저씨’에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의 무게를 견뎌

내고 있는 영화배우 ‘유리’ 역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의 ‘소금’ 역으로 연기력을 펼친 권나라는 ‘2019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KBS 연기대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게다가 ‘이태원 클라쓰’로 욕망과 우정 사이의 간극을 오가며 입체적인 캐릭터 ‘수애’를 탄생시켰고, ‘안행아사: 조선비밀수사단’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으며 2021년 ‘KBS 연기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가운데 드라마 ‘불가살’의 죽음과 환생을 반복하며 불가살에게 쫓기는 여자 상으로 분한 권나라는 감정 연기의 정수를 또 한번 탁월하게 담아냈다. 이처럼 다양한 인물을 흡입력 있는 연기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 작품의 흥행까지 이끈 권나라는 연기와 배우로 굳건히 자리했다.

이에 고스트 스튜디오 측은 “장르를 불문하고 무한한 캐릭터 스펙트럼을 증명하고 있는 권나라가 안정적인 연기력과 든든한 파트너인 고스트 스튜디오를 만나 함께 나아가길 다음 행보에 기대와 관심이 모인다”고 밝혔다.

엑소 첼백시·SM “계약 일부 수정해 유지”...컴백 가속화

SM “제 3의 외부세력 개입” 관련은 오해” 인정

한류 그룹 ‘엑소(EXO)’의 유닛 ‘첼백시’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분쟁을 끝냈다.

SM과 첼백시 멤버들인 백현(변백현)·첸(김종대)·시우민(김민석)은 1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SM과 3인은 아티스트 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일부 협의 및 수정 과정을 통해 엑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SM은 “당사와 아티스트 3인은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슈를 논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이를 통해 그간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이견을 해소하고 상호 윈윈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SM과 첼백시는 상호 대등한 협의 및 수정 등의 과정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관계를 더욱 더 공고히 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당사는 아티스트 3인이 각 아티스트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각자 새로운 모습과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SM은 ‘제 3의 외부세력 개입’과 관련해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앞서 SM은

당초 제3의 외부세력이 부당한 지위를 가지고 첼백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이번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SM은 “이번 논의를 통해 제3의 외부세력 개입에 대해 당사 오해한 부분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의 발표로 심려를 끼쳐드린 관계자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25세대 K팝 그룹인 엑소는 3세대 K팝 그룹부터 본격화된 세계관의 시초를 다진 팀으로 평가 받는다. 2013년부터 정규 앨범 5장 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물론 중국어 버전 앨범 또는 리패키지 앨범을 합한 누적 판매량이지만(2001년 이후 단일 앨범으로 100만장을 돌파한 건 2017년 방탄소년단이 처음) 팬덤을 기반으로 3·4세대 K팝 그룹의 음반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엑소가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멤버들이 교복을 입고 세련된 멜로디에 맞춰 오차도 없는 길군무를 추는 ‘오르렁’(2013)은 K팝 그룹의 퍼포먼스의 격을 한 단계 높인 K팝 역사에 기념비적인 같은 곡이다. 원테이크 형식으로 촬영한 ‘오르렁’ 뮤직



비디오는 댄스 영화를 보는 듯한 감각적인 영상미로 호평을 받았다. 이후 발표한 ‘중독’ ‘콜 미 베이비’ ‘러브 미 라잇’ ‘코코밤’ ‘템포’ ‘러브샷’ 등 역시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인정 받았다. 데뷔 당시 12인으로 출발했으나 중국인 멤버들이 모두 이탈하면서 8인조가 완전체가 됐다.

오는 7월10일 정규 7집 ‘엑시스트(EXIST)’를 발매한다. 앨범 발매에 앞서 수록곡 ‘렛 미 인(Let Me In)’을 지난 12일 선공개했다. 이번 음반 활동은 멤버 카이가 예상보다 빨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하게 되면서 8인 완전체는 힘들다. 하지만 카이가 음반 작업에 참여한 만큼 완전체라 불리도 무방한 음반이다.

블랙핑크, ‘본 핑크’ 시드니 공연 성료

그룹 블랙핑크가 호주 시드니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블랙핑크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호주 시드니 쿠도스 밴크 아레나에서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 핑크] 시드니’를 개최했다. 2019년 이후 약 4년 만의 호주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첫 월드투어 ‘인 유어 에이리어(IN YOUR AREA)’ 대비 2배 확대된 규모로 진행됐다. 지난 10일과 11일 멜버른에 이어 시드니까지 총 4회 공연이 모두 매진되며 공연장에 약 5만 관객을 동원했다.

블랙핑크는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과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 ‘휘파람’으로 무대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러브시크 걸스(Lovesick Girls)’,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핑크 베놈(Pink Venom)’ 무대와 지수, 멤버들의 솔로 퍼포먼스 무대를 펼



쳤다. 호주 공연을 마친 블랙핑크는 프랑스 파리에서 월드투어를 이어간다.